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개념을 통한 프레임 분석

‘사학법 개정’ 관련 갈등 보도를 중심으로*

이병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박관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인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본 연구는 사학법 개정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를 통해 뉴스가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슈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나아가 각 신문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중심 논조와, 중심 논조를 통해 구조화되는 전체 프레임을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각각 보수, 진보, 종교계를 대표하는 『조선일보』, 『한겨레』, 『국민일보』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자유는 재산이다’와 ‘전쟁 은유’를 통해 사학법 개정 국면을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장면화 또는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신문사의 전체 프레임이 완전히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일보에 비해서 국민일보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한겨레는 ‘앞은 좋은 것이고 뒤는 나쁜 것이다’와 ‘전쟁 은유’를 통해 조선일보나 국민일보와는 정반대 방향의 전체 프레임을 통해 사학법 개정 국면을 장면화하고 있었다.

주제어: 프레임, 은유, 사립학교개정법, 갈등보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제2단계 두뇌한국(BK) 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lbj72@khu.ac.kr

*** kobuki24@hanmail.net

**** ihlee@khu.ac.kr

1. 서론

언론의 보도는 취재자와 취재 시스템의 속성상 본질적으로 언론사의 특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되기 마련이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1). 즉, 뉴스 프레임을 통해 보도되는 사회적 현실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산물인 것이다(Gitlin, 1980).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한 면을 차별적으로 부각하거나 특정 사안의 다양한 요소들 중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은 체계적으로 무시한다(정재철,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그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의하거나 또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미디어 프레임은 특정 쟁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그것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쟁점에 관한 국민 참여의 폭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그 쟁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 폭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Tuchman, 1978; 정재철, 2004).

언론의 객관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사회 현안을 다룬 보도에서는 뉴스 생산자의 시각이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이 포함된 뉴스가 생산된다(김원용, 이동훈, 2004).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논의의 본질보다는 갈등 자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Shoemaker & Reese, 1996). 갈등 당사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 편중된 보도는 수용자의 오해를 부르고 오히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 반면 공정한 보도는 사건과 관련된 주장과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이해와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¹⁾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의

1)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안 중에 하나였던 이 법안은 여론형성 단계부터 사학재단과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개정 논의가 쉽지 않았다. 결국

법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많은 논란과 극한의 대립을 낳았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기존의 프레임 연구의 접근법은 대체로 개별 기사의 프레임을 분석한다. 대부분의 프레임 연구에서 개별 기사들을 분석하고 유목화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다 보니 전체적인 기사의 의미나 상징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적 쟁점 또는 현안의 보도에서 재구성된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텍스트상의 형식적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원용, 이동훈, 2005). 그래서 프레임 연구는 언론보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불명확성과 개념의 혼란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프레임을 유형화하고 현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Entman, 1993; Scheufele, 1999; 김원용, 이동훈, 2005).

기존의 프레임 연구의 단편성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기사에 담긴 은유적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프레임의 속성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학자 레이코프(Lakoff, 2002)는 언론의 프레임 구성에서 은유적 표현을 통한 보도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레이코프는 “모든 단어는 개념적 프레임에 맞추어 정의되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는 그 단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된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대중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하며, 은유를 통한 프레임의 기능과 영향력을 강조했다(Lakoff, 2004/2006, 18쪽).

2005년 12월 9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 임명 제한을 핵심 쟁점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의도적 불참에 따른 마찰 속에 의장 직권 상정으로 참석의원 154인 중 찬성 140, 기권 4, 반대 10으로 정세균 의원 외 14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 후 대통령 거부권 문제와 시행령 선포를 두고 한나라당과 사학 및 종교단체들은 장외투쟁은 물론 학교폐쇄를 선언하는 등 거센 반발을 낳았다.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당시 논의되었던 다른 쟁점 법안과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개정, 재개정 논의문제를 가져왔고 여파는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도 은유는 단순히 수사학적 차원을 넘어 작가의 세계 인식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 따라서 언론이 표현하는 은유도 뉴스 생산자로서의 세계 인식의 구조 또는 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이코프의 은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대표적인 사회적인 갈등 사안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보도내용을 분석한다면, 언론의 프레임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1) 일상적 은유 이론과 갈등의 은유

은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을 구조 짓는 수사법을 의미한다(Lakoff & Johnson, 1980). 인간은 지각을 매개로 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지각이란 일정한 개념체계 또는 인지적 스키마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 같은 구조를 은유적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은유의 본질이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Lakoff & Johnson, 1980/1995, 23쪽). 이것은 “낮선 것을 낯익은 것으로 정의하는 수사법”이라는 상식적인 은유의 정의의 다른 표현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시간’은 아직은 정의되지 않은 낯선 피정의항이며 ‘돈’은 낯익은 정의항이다. 우리는 돈에 관한 의미와 경험을 시간에 투사함으로써 시간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레이코프와 존슨에 따르면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장치는 네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줄 시간이 없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 일에 네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 너는 네 시간을 계획성 있게 쓸 필요가 있다…… (Lakoff & Johnson, 1980/1995, 26쪽).

이와 같은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이유는 우리의 돈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돈이란 소중한 것이며 정확한 양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고, 계획성 있게 쓸 수 있고, 현명하게 또는 서투르게 투자하거나 허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험”(Lakoff and Johnson, 1980/1995, 27쪽)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너의 주장은 방어될 수 있다/ 그는 나의 논증의 모든 약점을 공격했다/ 나는 그의 주장을 분쇄했다/ 네가 그 전략을 사용한다면…… (Lakoff and Johnson, 1980/1995, 22쪽).

은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은유란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정의는 잠재적으로 은유이다. 정의의 일반적 형식은 “A는 B이다”이고, 이 일반적 형식에서 가정되는 것은 바로 A와 B의 유사성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의 예인 “시간은 돈이다”에서 가정되는 것은 바로 “시간≐돈”의 유사성의 관계이다. 문학에서 정의되는 은유(隱喩)란 숨겨진(隱) 유사성을 인식하게 하는(喩) 문학적 인식의 수단이다. 그리고 은유의 영어 표현인 metaphor는 어원적으로 형태변화를 뜻한다. 이와 같이 모든 정의가 잠재적으로 은유라면, 개념의 정의 또한 잠재적으로 은유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념의 범위를 학술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비록 학술적 개념과 같이 엄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수많은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개념 또한 사용되고 이해되기 위해서 정의되어야만 한다면, 일상생활은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셈이다. 이것들이 은유로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일상어이기 때문이며, 리코

르의 표현을 빌자면 ‘죽은 은유’이기 때문이다(Ricoeur, 1977).

은유의 또 다른 함의는 은유가 일정한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시간’의 은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중심적 은유와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사이에는 개념적 함축관계가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시간은 돈이다”와 같은 중심적인 은유를 ‘은유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은유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은유적 표현들은 은유적 개념들과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Lakoff & Johnson, 1980)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은유적 개념의 체계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들의 많은 예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승진’과 ‘지위가 떨어지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위는 좋고, 아래는 나쁘다”라는 은유적 개념은 다양한 은유적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 은유적 표현들을 구조화한다. 이 밖에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만들어 낸 은유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정신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다. 그는 반대 심문에 무너졌다,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와 같은 은유체계가 있다.

은유는 단지 의미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는 것,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하기도 한다. 즉, 은유란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레이코프와 존슨의 논지이다. 우리는 은유를 통해서 어떤 사물·사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따라서 행위 하는 것이다. 은유의 이 세 가지 특징적 함의는 은유의 일상성, 은유의 체계성, 은유의 특정행위 지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은유의 특성은 갈등 상황에도 적용된다. 갈등에 관한 은유는 우리가 갈등을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갈등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구조화한다(Wilmot & Hocker, 2001,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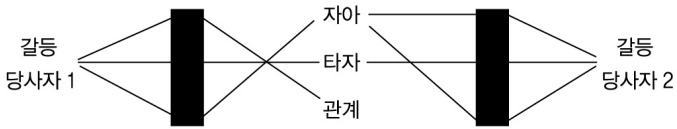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미국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은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은유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은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은유가 갈등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한 지각을 구성하고 갈등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표 1> 갈등은유의 유형

유 형	하위은유
Win-Lose 은유	갈등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갈등은 걱정적인 것이다 갈등은 투쟁이다 갈등은 의사소통의 붕괴이다
중립적 은유	갈등은 게임이다 갈등은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다
긍정적 은유	갈등은 협상 테이블이다 갈등은 밀물과 썰물이다 갈등은 춤이다 갈등은 뜨개질과 같은 것이다

출처: Interpersonal Conflict (p. 16-25), by Wilmot, W. & Hocker, 2001, NY: Wm. C. Brown.

언급된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갈등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라는 은유와 “갈등은 춤이다”라는 은유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Win-Lose 은유의 경우에는 이 은유를 이루는 중심 개념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이다. 그리고 이 개념에 따라서 갈등 당사자들은 적대적 대립 관계로 구성된다. 반면 긍정적 은유의 경우에는 “갈등이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통합의 계기”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의견 대립의 합리적인 절충”라는 중심개념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갈등 당사자들은 협력적 관계를 갖게 된다. 윌모트와 호커에 따르면 우리들은 갈등상황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갈등 은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은유에 따라 행위하게 된다(Wilmot & Hocker, 2001). 즉, 전쟁은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의 특징인 일상성, 체계성, 특정행위 지향성 모두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들의 갈등에 대한 지각, 태도,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갈등 대부분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된다면 이러한 논의는 매스미디어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출처: Interpersonal Conflict (p. 27), by Wilmot, W. & Hocker, 2001, NY: Wm. C. Brown.

<그림 1> 렌즈 모델

2) 렌즈 모델과 매스미디어의 갈등 매개

앞서 제시한 은유에 대한 논의는 매개되지 않은 갈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언어나 은유 이전의 갈등 그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논점은 특히 모든 세상사를 매개의 질서로 용해하는 매스미디어의 경우 더 잘 들어맞는다.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대인 간의 갈등에서도 이미 매개된 갈등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월모트와 호커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모트와 호커는 갈등은 항상 지각과 언어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인간 발생하는 갈등을 렌즈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월모트와 호커가 이 모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갈등은 지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굴절되고 매개된다는 점이다. 위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갈등 상황임에도 갈등당사자 1은 자아, 타자, 관계 모두에 대한 지각을 형성한 것에 비해 갈등당사자 2는 관계에 대한 지각까지는 형성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즉,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의 자신과 갈등 상대방인 타자와 자신과 타자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형성한다. 물론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지각이 은유적 개념체계를 통해 구조화된다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지적이다. 이 렌즈의 의미는 <표 1>에서 제시한 갈등은유로 이해할 수도 있다. 갈등 당사자들이 Win-Lose의 은유를 통해 갈등 상황을 인식하는가 아니면 춤의 은유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인식하

는가에 따라서 자신과 타자와 관계에 대한 각기 다른 지각을 갖게 되고, 그 지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 상황과 갈등당사자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을 매개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갈등당사자들을 연결해주는 렌즈의 역할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월모트와 호커는 갈등분석의 첫 단계는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유분석이라고 강조한다(Wilmot & Hocker,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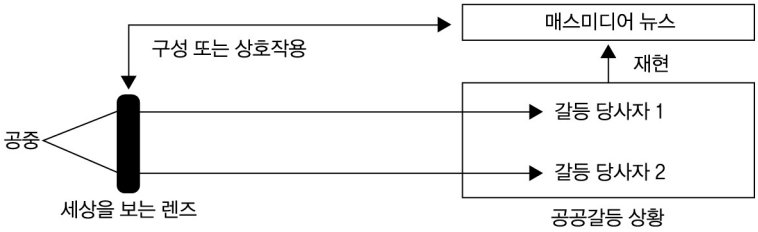
렌즈 모델은 뉴스란 사회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현실의 구성이라는 터치먼(Tuchman)의 주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터치먼은 뉴스를 창으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뉴스는 세계를 향해 나 있는 창이다. …… 창을 통해 바라보는 전망은 창의 크기와 창틀의 수, 유리의 맑고 흐린 정도, 창이 나 있는 방향이 길거리인지 뒷골목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는 사람의 위치, 즉 창에 가까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고개를 옆으로 숙이고 있는가, 똑바로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은 달라진다(Tuchman, 1978/1995, 19쪽).

이 비유는 월모트와 호커의 렌즈의 비유와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인지적 스키마가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과정 중에서 매스미디어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면, 월모트와 호커가 렌즈로서 비유한 것과 터치먼이 창으로서 비유한 것 간의 관계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모트와 호커가 주목하는 지점은 대인 간의 갈등이고, 매스미디어가 주로 다루는 갈등은 공적인 갈등이거나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적인 갈등이다. 즉 월모트와 호커는 우리가 직접 겪어야 하는 갈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는 매스미디어가 다루는 갈등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며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다. 이 점을 바탕으로 월모트와 호커의 렌즈모델을 <그림 2>와 같이 매스미디어에 적용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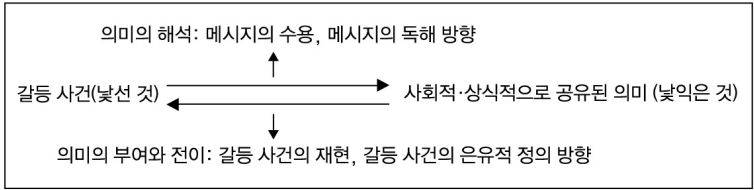
월모트와 호커의 렌즈모델을 매스미디어에 적용해서 재구성한 위의 모델



<그림 2> 매스미디어에 적용된 렌즈 모델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위의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접하는 공공갈등이란 우리가 그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항상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프레임 연구가 보여주고 있듯이 매스미디어의 재현은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특정 관점이 개입된 현실의 구성작용의 결과물이며 우리는 이 결과물을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고 평가하게 된다. 즉,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특정한 렌즈를 매스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매스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렌즈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서 갈등사건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갈등사건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갖게 된다. 즉, 갈등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의 의견에 지지하거나 다른 한편의 의견에 반대하게 된다. 위 그림에서 렌즈를 통해서 공중은 갈등당사자 1과 2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 이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스미디어의 여론형성 기능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매스미디어가 갈등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은유들이다.

은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의하는 기능이다. 매스미디어가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그 사건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정의한다. 이 과정을 은유의 과정에 대입해보면, 아직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사건은 피정의항인 ‘낯선 것’이며 사건에 부여되는 의미는 사회적·상식적으로 공유된 의미인 ‘낯익은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매스미디어를 통한 은유적 정의

모든 정의와 모든 예시는 낯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낯선 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며 전제되는 것은 낯선 것과 낯익은 것 간의 유사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스미디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개념체계를 사용해서 사건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구성한다. 즉, 일상적인 개념체계를 통해서 형성된 의미를 사건으로 전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2>처럼 매스미디어의 재현과 공중의 렌즈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왜 상호작용 관계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는 문학과 같이 새로운 은유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와 사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각·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체계를 매스미디어가 재현하는 사건 속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매스미디어는 대중적인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고 전위적인 예술 텍스트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3) 레이코프의 정치적 은유

레이코프는 그의 저서 『도덕의 정치』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공화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들을 프레임에서 찾고 있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이 프레임은 두 가지를 설명해 준다. 첫째로 이 프레임은 낙태의 반대(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정책)나 사형제도 찬성(낙태 반대와 다른 가치를 가진 것 같은)와 같이 겉으로는 모순되는 여러 공화당의

정책을 보다 구조적인 층위에서 일관되고 정합된 것으로 묶어주는 가치와 논리를 설명해준다. 둘째로 공화당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민주당의 엄밀한 논증에도 불구하고 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준다. 레이코프는 이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프레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버려집니다. …… 이 나라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담 후세인이 9·11의 배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프레임을 지니고 있고 그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Lakoff, 2004/2006, 48~52쪽).

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중의 통념을 우선시하는 전제이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중심점을 은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레이코프가 분석한 공화당의 은유는 “국가는 엄한 아버지의 가족이다(strict father family)”로 요약될 수 있는 ‘엄한 아버지’의 은유이다(Lakoff, 2002, 2004). 레이코프에 따르면 규율과 훈육을 강조하고 엄격한 규율을 아이들에게 내면화시켜 그 아이들이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버지의 상은 미국인들에게 널리 퍼진 가치이다. 공화당은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이 가치와 개념체계를 또는 미국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와 개념체계를 이용해서 그들의 정책을 일관되게 구조화하는 프레임의 원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레이코프의 분석이다. 즉, ‘국가는 엄한 아버지의 가족이다’라는 은유가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공화당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정책의 이미지를 이 은유가 내포하는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하는 정당으로 구성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레이코프의 분석을 다시 재정리해본다면 공화당의 각각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정합적인 개념체계 안에 위치할 수가 있다. 미국인들에게 ‘엄격한 아버지’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Lakoff, 2004/2006, 31쪽).

- 험한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 자녀들을 그릇된 길에서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레이코프는 이에 덧붙여서 내면적 규율이 의미하는 바를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내면적 규율이 필요하며, 이 기회의 땅에서는 자기를 절제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장차 부유해질 수 있고 자립 또한 할 수 있다…… 자녀를 도덕적으로 바로잡는 바로 그 규율이 물질적 부를 약속하기도 하는 것이다”(Lakoff, 2004/2006, 32쪽)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공화당의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레이코프는 언급하고 있다(Lakoff, 2004/2006, 23~78쪽).

- 사회복지 정책의 축소: 자신이 직접 벌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은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도덕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 권위적인 외교정책: 따라야 할 규칙을 제정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벌해야 하기 때문에
- 기업 보조금 정책: 자수성가한 선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상이기 때문에
- 세금감면: 세금이란 자수성가한 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 정책들은 모두 엄격한 아버지의 규율에 따라 길러진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가 보호해야만 하는 ‘선한 사람들(good person)’(Lakoff, 2004/2006, 33쪽)에 관련된다. 즉, 정치와 국가의 도덕적 은유와 관련된다. 공화당은 유권자

들에게 자신의 정당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정책을 구조화화—어떤 은유에 기반하고 있는 개념들과 범주들의 체계—해서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가지를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중심적인 은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둘째로 이 은유가 함축하고 있는 개념체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일관되고 정합적인 프레임 안에 배치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 프레임이 구성된다면 이 프레임에 따라서 정치를 도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덕화의 결과는, 일반적인 도덕화가 그렇듯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서 투표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은유에 기반한 프레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생생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이 프레임에 근거한 장면화 또는 내러티브화이다.

4) 은유를 적용한 분석 틀: 중심은유, 장면화, 갈등담지자

레이코프는 공화당의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조지 W.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바로 그날부터 백악관에서는 ‘세금구제(tax relief)’라는 용어가 흘러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 ‘구제(relief)’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 봅시다. …… ‘세금’이라는 말이 ‘구제’ 앞에 붙게 되면,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은유가 탄생합니다. 세금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 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그를 방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고통’, ‘영웅’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Lakoff, 2004/2006, 25쪽).

이 언급은 어떤 은유에 기반한 내러티브화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은유와 내러티브 간의 관계를 ‘구체성의 논리’로서 파악했던 레바스트로스의 신화론이다(Fisk, 1990/1997). 우리는 앞에서 은유적 과정을 낫익은 것을 통해서 낫선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레바스트로스에 따르면 추상적인 것(낫선 것)을 구체적인 것(낫익은 것)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신화적인 은유이다. 그런데 내러티브는 하나의 은유적 과정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속에서는 선/악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이들 간의 대립 속에서 선/악은 구체적인 장면을 획득해 가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회가 그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은유적인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체험”(Fisk, 1990/1997, 167쪽)하게 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따르면 대중장르 영화들 또한 일종의 ‘구체성의 논리’이며 은유적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Schatz, 1981/1996). 토마스 샤프는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장르 구조를 통해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샤프에 따르면 영화 장르란 ‘집단적인 문화적 표현’인 동시에 ‘특정한 가치를 반영한 내러티브 체계’이며, 서부영화 장르의 경우에는 각각의 서부영화 내러티브들은 개척정신의 찬미, 주인공의 소박한 개인주의 등의 미국의 건국 신화를 반영하고 있다(Schatz, 1981/1996). 그리고 이 내러티브란 개인/공동체, 문명/야만의 추상적인 대립항의 구체화로 진행되며, 이 모순은 영화 말미에서 해소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이와 같은 장르의 힘을 “이항 대립의 구조 안에 내재하는 모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원적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역할”(Fisk, 1990/1997, 213쪽)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피스크는 장르와 같이 어떤 내러티브의 반복을 “구조화된 반복”(Fisk, 1990/1997, 206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레이코프가 분석했던 정치적 은유 또한 이와 같은 ‘구체성의 논리’로서의 은유적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먼저 ‘엄격한 아버지의 은유’에 따라 [도덕적/비도덕적]이라는 추상적인 대립 틀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 대립틀을 구체화 또는 체현할 인물 또는 형상을 통해 이 대립틀은 구체화된다. 대립틀을 구체화 또는 체현한 인물 또는 형상은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예를 들자면 갈등 담지자—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도덕의 타락’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의 시퀀스가 제시되며, 공화당은 이 타락을 되돌려 정상적인 도덕인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복구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공표하며, 이 목표의 실현을 통한 모순의 실현을 전미래 시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적인 은유와 이 은유의 장면화를 통해 사람들은 공화당

에 투표함으로써 공화당이 자신의 도덕화된 정치적 임무를 실현할 물적인 토대를 제공해준다. 레이코프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분석 틀이 가능한가?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분석 틀은 개별 기사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관한 기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기사를 묶어주고 개념 틀을 부여해주는 중심은유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중심은유는 두 가지 은유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각 신문사들은 월모트가 제시한 ‘갈등의 은유’ 중 어느 은유를 사용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은유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편의 완전한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해결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레이코프가 발견했던 ‘엄격한 아버지의 가정’과 같은 중심적인 은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중심은유는 왜 갈등을 전쟁 또는 춤 또는 게임으로 보는가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기사가 다루는 전체 사건을 구조 짓는 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이 중심적 은유를 장면화하고 있는 요소들의 분석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 은유란 단순히 현재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하는 동시에 이 가치에 따라 보다 나은 미래의 상을 그리고 이 미래의 상을 가로막는 현재의 장애물을 지시하는 내러티브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은 갈등의 담지자들이다. 그리고 중심적 은유에 따라서 이 갈등의 담지자들이 맡게 되는 역할이다. 왜냐하면 기사가 전쟁의 은유를 사용한다면 갈등의 담지자는 특정 가치를 지키는 ‘아군’과 이 가치를 위협하는 ‘적군’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갈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리고 기사가 보도하는 각각의 사건에서 제시된 갈등 담지자들과 갈등 목표들 간의 유사성을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5) 헤게모니와 프레임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마지막 논의점은 바로 전체 프레임의 정치적 함의이다. 갈등이란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등에 선재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사회집단 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정치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 봉합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기술들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면, 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은 언제나 정치적 맥락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공공갈등에 대한 전체 프레임을 ‘동의와 설득’을 통한 ‘집합의지의 창출’이라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헤게모니 개념 해석과 라클라우와 무페의 적대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였다.

그것은(필자 첨가: 헤게모니는) 삶 전체에 있어서의 실재와 기대의 총체로서 우리들이 지닌 역량에 대한 인식과 그 배분,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구성적 지각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성적이고 실제로 구성 중인, 의미와 가치에 관한 하나의 체험된 체계이다(Williams, 1977/1993, 138쪽).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체험된 체계”와 “실재와 기대의 총체”라는 윌리엄스의 표현이다. 담론이론이든 신수사학이든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언어학적 전회, 즉 우리의 체험의 영역은 항상 언어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험의 영역은 항상 재현의 영역이며, 삶 전체는 상징적으로 매개된 실재의 총체이다. 따라서 ‘갈등의 상황’ 또한 항상 재현의 형태로 체험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갈등이란 항상 사회체계의 교란, 또는 사회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제자리에 있지 않음, 즉 탈구(dislocation)로 재현되고 체험된다. 이 체험의 전제는 만약 사회체계의 각각의 요소들이 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갈등과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때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말한 “기

대의 총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갈등을 넘어선 유기적인 사회라는 미래체험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미래체험이 시간의 선형성을 전제하고 있는 한, 이 미래체험의 재현형식은 내러티브일 수밖에 없다. 우리 많은 내러티브를 미래체험으로서 체험해왔고, 이 내러티브가 그려내는 사회를 열망해왔다. 우리 이 문제를 갈등의 원인 → 갈등 상황의 정의 → 갈등 해결을 통한 유기적 사회전망이라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헤게모니 개념은 그 자체로 ‘지배와 피지배’ 또는 ‘사회의 분열’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사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다면 유기적 사회라는 전망을 미래체험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갈등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프레임은 서로 배제적이라는 점이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 배제적 관계를 ‘적대(antagonism)’로 정의한다. 적대란 단순한 차이나 대립이 아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기적인 총체로서 인식하며 사회의 분열을 외부적인 침입의 결과로서 생각한다. 그리고 우파는 자신이 유기적 총체의 수호자로, 좌파를 외부의 침입자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서 좌파는 사회를 본래적으로 분열되고 갈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을 갈등을 통한 사회 진보의 담지자로, 우파를 정당한 갈등과 분열의 억압자로 간주한다. “이 둘은 정치 공간 내에서 단순히 다른 장소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정치 공간의 배열도 다르게 인식 한다”(Butler, Laclau and Zizek, 2002, p.113). 이 둘 간의 관계를 차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둘이 차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음/양과 같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인 총체를 이루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이들의 차이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 수 있는 공통의 잣대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좌/우의 관계는 서로를 구별하고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 즉 공통의 잣대를 정의하는 방식에서조차도 달랐다. 즉, 이 둘 사이에는 소통을 가로막는 어떤 비소통의 공간이 존재한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전적으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타자의 현존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적대(antagonism)’로 명명하고 있다(Laclau & Mouffe, 1985).

그렇다면 갈등, 적대, 헤게모니, 전체 프레임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 것일까?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적대 관계를 라클라우와 무페는 “은유로서의 적대”(Laclau and Mouffe, 1985/1992)로 정식화한다는 점이다. 좌파건 우파건 ‘국가’나 ‘민족’과 같은 궁극적인 단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단어들, 좌파와 우파를 한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이 궁극적인 단어를 누가 성공적으로 은유화하는가에 따라서 헤게모니 투쟁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단어들은 ‘의미 없는 기표들’이며 항상 은유적 과정에 의해 의미를 소급적으로 부여받는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정의(definition)로서의 은유’이다. 이러한 논의는 바로 레이코프의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유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국가’이다. 그러나 이 둘이 갈라서는 곳은 바로 이 단어를 은유화하는 방식에서이다. 공화당은 “국가는 엄한 아버지이다”라는 은유를 만들어내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는 자애로운 부모이다”라는 은유를 만들어낸다. 이 은유 속에서 각 당의 일관된 프레임이 도출되고, 이 프레임을 통해 유권자들을 자신들의 정당의 지지자로 (알튀세르 적인 의미에서) 호명한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호명하는가에 따라서 두 당의 헤게모니 투쟁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다. 즉, 공공갈등은 단순한 갈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지라는 일정한 정치적 동원의 기제를 사용한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은유를 통해 창조된 갈등 당사자들의 유사성 —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해관계의 유사성 — 이다. 이것은 라클라우적인 용어로 ‘등가의 체계’인데, 노동자건 농민이건 또는 학생이건 소상공이건 간에 은유적 과정에 의해 갈등 당사자와 유사성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유사성 속에서 마치 갈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자신의 갈등으로 체험하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은 이 등가의 체계를 통해서 유권자들이나 일반대중들은 갈등을 ‘실제와 기대의 총체’로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헤게모니 이론에서의 수사학의 힘 — 지금의 맥락에서는 전체 프레임의 힘 — 은 단순히 텍스트의 힘이 아닌 실제적인 힘으로 개념화된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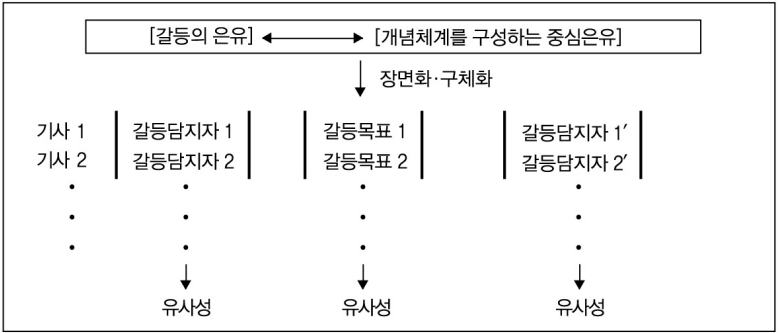
1) 자료수집

‘사립학교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프레임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국민일보로 하였다. 이들 신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각각 보수와 진보 종교계를 대표하는 주류 미디어로 인정받고 있으며(이민규, 김수정, 2006), 이들 성향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는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닷컴을 (<http://www.chosun.com>) 통해 수집했다. 분석 시기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노무현정부의 출범 시기인 2003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사립학교법”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기사를 추출하였다. 1차 추출된 기사 양은 조선일보 665건, 한겨레 662건, 국민일보 781건이었다. 그 후 분석자가 하나씩 읽어 가면서 단순 스트레이트기사들을 제외하고, 사립학교법 내용만 다룬 기사를 2차로 재분석하였는데, 모두 조선일보 174건, 한겨레 182건, 국민일보 212건이었다. 2차로 분석된 기사에서 직접적인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최종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33건, 한겨레 40건, 국민일보 45건으로 압축되었다.

2) 분석 틀과 연구문제

연구지를 포함한 세 명의 코더가 최종 분석대상 기사로 선정한 118건의 기사를 바탕으로 신문사들이 월모트와 호커가 제시한 ‘갈등은유’(<표 1> 참조) 중 어느 은유 유형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각 문장을 전체로 묶을 수 있는 중심은유를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이슈와 관련된 개별 뉴스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림 4> 갈등의 전체 프레임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강내원, 2001). 또 단편적 프레임보다 전체적인 프레임의 파악에 무게를 두고 시도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보았을 때, 기존 프레임의 적용은 갈등의 본질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중요특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은유적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체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레임을 틀 짓는 갈등은유와 개념적 중심은유가 필요하며, 이 은유에 따라서 구체화되고 장면화될 갈등 목표와 갈등 담지자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전체 프레임은 <그림 4>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각 신문사는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각 신문사가 사용하는 갈등은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2 각 신문사가 사용하는 개념적 중심은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3 각 신문사는 갈등담지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1-4 각 신문사는 갈등 목표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각 신문사의 전체적 프레임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가?

3)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체 기사에 대한 여러 번의 프레임 분석을 한 다음 코더에게 연구 목적과 코딩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위머와 도미니크(Wimmer & Dominick, 1997)가 제시한 것처럼 다른 코더에게 동일하게 전체 분석대상의 10%를 코딩하도록 하여 코더 간의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1차 분석은 약 76%, 2차 분석은 93%의 일치율을 보였다.

4. 언론사별 은유 분석결과

1)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사용된 은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건 중 31건이 전쟁은유를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은유적 묘사들은 조선일보에서 사용된 사학법과 관련된 갈등 국면을 정의하는 표현들이었다. ‘공세전술’, ‘후퇴’, ‘몸으로 막겠다’, ‘장악’, ‘배수진’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묘사들은 전쟁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또는 ‘계엄령’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반(半)전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갈등국면에서의 갈등당사자들의 행동들은 모두 전쟁에서의 행동으로 은유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묘사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중심은유는 ‘갈등은 전쟁이다’라는 전쟁 은유이다. 윌모트와 호커는 갈등은유 중 ‘전쟁 은유’를 ‘Win-Lose 은유’의 한 종류로 보고 있으며, 이 은유에 따른다면 갈등이란 갈등에서 승리한 갈등 당사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됨으로써 해소된다(Wilmot & Hocker, 2001). 이러한 은유 속에서는 갈등 당사자들 간의 관계란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조선일보가 사학법과 관련된 갈등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합의 어려운 4대 법안 與 “공세전술 요구될 때 처리”(04.08.30)
- 與 4대 쟁점 법안 “후퇴는 없다”(04.10.12)
- 사학비리 근절이나, 사학 경영권 탈취냐(04.10.21)
- 사학들 학교 문 닫겠다 배수진(04.12.20)
- 박대표 “몸으로 막겠다”(05.12.9)
- 사학측 “전교조가 학교 장악”(05.12.10)
- 교육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06.01.07)
- 김근태, 전교조측 “사학법 후퇴말라” 요구 비판(07.1.27)

조선일보에서 지목된 갈등당지자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일보의 갈등당지자 빈도(중복 허용)

	갈등당지자(아군)	상대편 갈등당지자(적군)
참여정부(정부기관 포함)	0건	21건
열리우리당	0건	26건
한나라당	17건	1건
사학재단	23건	0건
종교계	9건	0건
전교조	0건	16건
민심	2건	0건

그리고 갈등당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비리 내세워 사학 뺏나(04.09.04)
- 종교계 對 정부·여당 ‘갈등’(04.09.17)
- “사학 말살법 차라리 학교 문 닫겠다”(04.10.15)
- 군사정권식 사학 겁주기, 사학비리 전면 수사(06.01.09)
- 氣오른 열린 우리당, 맥빠진 한나라(05.12.12)

- 종교계가 교육에 둔 뜻을 짓밟아 버린 사립학교법(05.12.16)
- 개정사학법은 신앙 말살하는 사학법 사학비리, 현행법으로 충분히 통제 (06.12.22)

각각의 예문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 갈등 담지자들은 다음과 같다. “**與 4대 쟁점 법안 후퇴는 없다**”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등 담지자로, “**군사정권식 사학 겁주기, 사학비리 전면 수사**”에서는 참여정부와 사학 재단이 갈등 담지자로, “**종교계 對 정부·여당 갈등**”에서는 종교계와 참여정부·열린우리당이며, “**사학 측 전교조가 학교 장악**”에서는 사학 재단과 전교조가 갈등 담지자로 묘사되고 있다.

주 갈등 담지자는 ‘한나라당·종교계·사학재단 對 참여정부·열린우리당·전교조’이다. 이 갈등 담지자들은 사학법을 둘러싸고 각각 사학법 통과 또는 사학법 저지를 갈등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목표 사이의 합의점은 “**與 4대 쟁점 법안 후퇴는 없다**”나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학 재단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학법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05.12.10)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신문이란 갈등 담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도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언론기관 중 하나라면 ‘사학법 저지’라는 갈등 목표는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 속에서 ‘사학법 저지’는 정당화되고 있는 것인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이 목표에 정당화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 기사를 묶어줄 수 있는 중심은유를 함축하고 있다.

- 사학법은 재산권 평등권 침해(05.12.29)
- 자율성 재산권 침해하는 악법(05.12.14)
- 한나라 “개방형 이사제는 자유 민주 원칙 훼손”(05.12.09)
- 사학법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시험대(05.12.27)
- 사학 빼앗는 사회주의적 발상(04.08.18)

위의 예문들은 공통의 논리를 찾기 위해서 점증의 논리로 재배열해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된다.

재산권 침해 → 사학법은 악법 → 개방형 이사제는 자유민주원칙 훼손 → 사학법은 사회주의적 발상(∴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시험대)

조선일보 2004년 9월 17일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종교계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종교교육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아마도 ‘자유’일 것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사학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재산권’, ‘경영권’, ‘교육권’, ‘종교권’ 등의 쟁점이 제기된다.

‘자유’는 이들을 모두 묶어줄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는 근대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의 계보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대 자유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권력과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며, 특히 사적소유의 자유이며 사적 이익 추구의 자유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무엇보다도 근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표현이며, 그 밖의 권리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또 다른 근대 자유주의의 표현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쟁점들은 ‘자유’라는 표제 아래 묶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이념 또는 정치철학적인 내용들은 일반 공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인 용어들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즉,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체험적 내용으로 전환해주는 은유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빼앗다’, ‘침해받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자유는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일까?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와 같은 논리를 ‘개체 은유’ 또는 ‘물질 은유’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에 따르면,

물리적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이해의 보다 더 심오한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물건과 물질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경험의 부분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동일한 종류의 분리된 물건이나 물질로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일단 우리의 경험을 물건이나 물질로서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시할 수 있고, 범주화할 수 있고, 무리지을 수 있으며, 양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그것들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Lakoff & Johnson, 1980/1995 50쪽).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와 같은 설명에 적합한 예로써 “많은 인내”,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한다”, “그의 신념은 산산이 부서졌다” 등을 들고 있다. 이 예들은 모두 추상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비유하고 있다.

사실 정신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 신념이 포기되는 것을 물건이 깨지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체험적 용어로 표현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긴 구체적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고, 이 경험을 불쾌하거나 부당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체험적 근거 위에 자유를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는 재산이다’와 같은 은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자유는 재산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은 체험적으로 부당한 것이 된다.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일보는 ‘경영권’, ‘재산권’, ‘종교권’, ‘교육권’을 배타적이고 침해받을 수 없는 소유물로 기사화하고 있으며, 이 배타적인 소유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자유와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방식과 같이 배타적인 소유물을 통한 사적이익의 추구가 전체 사회의 균형과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논리이다. 이 배타적인 소유물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바로 ‘재산’이다. 그리고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았을 때 강한 감정을 동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일보가 개념적 중심은유를 구성하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볼 수 있다. 먼저 사학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침해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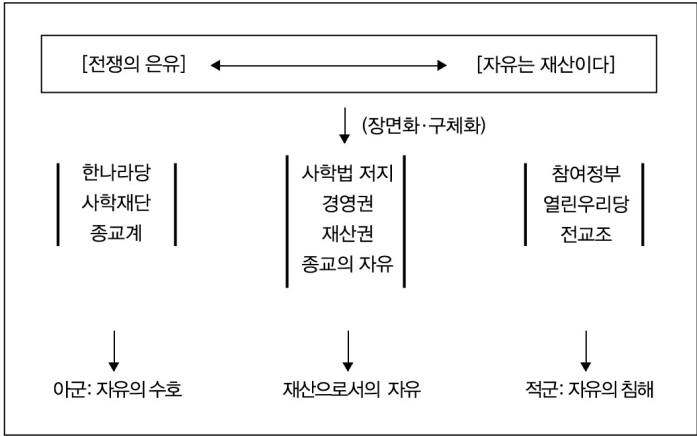
수 있는 권리들의 나열이다. 그리고 이 권리들 모두에게 ‘침해 될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의 의미가 부여된다. 즉, 이 권리들에 공통의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은유적 계열체가 형성된다. 그 다음 이 배타적 소유권에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에 고전적 자유주의 함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창조된 유사성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기사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개별적인 기사를 묶어줄 수 있고, ‘배타적 소유권’과 그것의 자유로운 처분과 사용이라는 ‘자유’를 묶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중적인 개념은 아마도 ‘재산’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일보의 개념적 중심은유를 ‘자유는 재산이다’로 분석적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레이코프는 중심은유에 의한 일반 대중들의 연상이 프레임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Lakoff, 1996).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의 중장년층의 정치경험 속에서 ‘친북좌파’나 ‘사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본다면 ‘자유를 빼앗김’과 ‘사회주의’가 어떻게 연상의 연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자유를 빼앗는 사학법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시험대—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대—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조선일보에서 사용되는 갈등은유는 ‘전쟁은유’이며 개념적 중심은유는 ‘자유는 재산’ 은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소는 상호보완되는 논리도 읽을 수 있다. 자유는 재산이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그리고 남에게 내가 양도하지 않는 한 나의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에 걸린 갈등은 전쟁상황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설정하는 갈등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사학법 저지’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면에서는 ‘재산으로서의 자유의 수호’이며, 이 자유는 ‘경영권’이나 ‘종교의 자유’ 등의 여러 쟁점들을 하나의 유사성을 묶어낸다—또는 계열체로 묶어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군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한나라당·사학재단·종교계’가 되며, 자유를 빼앗거나 침해하는 적군은 ‘참여정부·열린우리



<그림 5> 조선일보의 전체 프레임

당·전교조'가 된다. 그리고 이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는 바로 ‘자유를 위한 전쟁터’로서 장면화된다. 이를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민일보

국민일보에서 사용된 은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45건 중 30건이 전쟁은유를 사용하였다. 국민일보는 ‘대충돌’, ‘총알받이’, ‘회군’, ‘거래는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Win-Lose 은유’ 또는 ‘전쟁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갈등 담지자의 구도는 주로 ‘종교단체 對 참여정부·열린우리당’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일보가 사학법 갈등 전체의 분위기를 은유화하는 방식은 다음 기사들을 통해 드러난다.

- 우리당-한나라당 “거래는 없다” 대충돌 예고(04.10.16)
- 긴급회의 “밀리면 안 돼”(04.10.18)

- 사학법 충돌 2라운드(06.01.10)
- 사학법 총알받이나?(06.01.16)
- 상처 없는 회군? 장외투쟁 계속? ‘사학법 투쟁’ 기로에(06.01.16)
- 전운 감도는 국회(06.11.07)

국민일보의 갈등담지자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국민일보의 갈등담지자 빈도 (중복허용)

	갈등담지자(아군)	상대편 갈등담지자(적군)
참여정부(정부기관 포함)	1건	7건
열리우리당	0건	19건
한나라당	11건	0건
사학재단	13건	0건
종교계	27건	0건
전교조	0건	3건
전경련	2건	0건

주목할 만한 점은 위 표에서 보듯이 종교관련 단체가 갈등담지자로 제시되는 빈도수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종교 관련 갈등담지자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사학법 처리 땀 순교 각오로 투쟁(05.12.06)
- 기독교계 반발 “교계모독”(05.12.10)
- 한기총 “사학법 공포 땀 백지화 범국민운동”(05.12.27)
- 목회자 비상기도회(06.01.19)
- 교계 불복종운동 추진 정부와 재충돌 조짐(06.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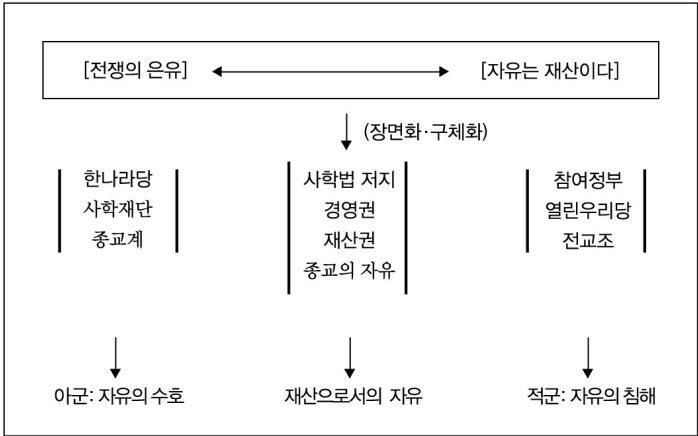
갈등의 목표는 ‘사학법 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편 갈등 담지자

의 갈등 목표는 ‘사학법 통과’로 이 두 목표 사이에는 어떤 타협점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국민일보는 ‘사학법 저지’라는 배타적인 목표의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는 요소들은 ‘경영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자유 수호’로 분류됐다. 주의를 끄는 점은 ‘종교(또는 신앙)의 자유’ 항목의 수가 조선일보 7건에 비해서 11건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권 종교교육 훼손 안 돼(04.06.18)
- 종교계 종립학교 건학이념 훼손 우려(04.08.21)
- 미션스쿨 정체성 훼손(04.08.30)
- 종교교육 억압 말라(06.01.20)

이 표현들을 묶어줄 수 있는 표현은 “개정사학법 신앙자유 해친다”(06.02.13)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일보에 인용된 한기총의 언급대로 “개정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학과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06.04.15)되기 때문이고, “신앙과 학문 과정을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06.01.19)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파하는 것도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방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는 기독교·신학대학들의 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및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저해함으로써 설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것”(05.12.10)이 된다.

여기에서 “사학법 처리 땐 순교 각오로 투쟁”(05.12.06)이라는 주목해볼 만한 은유적 표현이 있다. 일종의 순교은유이며 이 은유가 종교계가 주장하는 논리의 개념적 중심은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교란 억압된 종교적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국민일보 또한 경영권이나 사유재산권과 같은 권리들 또한 사학법 개정 저지의 정당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사학법 개정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인식된다면, 국민일보의 사학법 관련 전체 기사는 ‘자유는 재산이다’라는 개념적 중심



* 명조체는 강조된 갈등 담지자와 강조된 자유의 항목을 의미함.

<그림 6> 국민일보의 전체 프레임

은유에 근거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구한말과 일제 침략기 탄압 속에서도 순교자적인 교육실천을 이어온 사학이 정부와 여당의 개방과 참여 논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04.11.08) 유사의 논리는 ‘자유는 재산이다’ 은유의 하위 은유이거나 특이한 강제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국민일보의 갈등은유는 ‘전쟁 은유’이며 개념적 중심은유는 ‘자유는 재산이다’ 은유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에 은유의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3) 한겨레

한겨레신문은 전체 40건의 은유기사 중 전쟁은유를 다룬 기사는 17건이었다. 다른 신문들에 비해 비교적 중립의 은유나 긍정의 은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은유적 표현들도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사학법 개정’이라는 갈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갈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 교수 노조선 개정촉구 시위 “사립학교법 개정 땀 불복(04.11.08)
- 사학법 처리 여야 ‘전운’ 감돈다(05.09.13)
-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05.09.13)
- 여야 쟁점법안 공방 가열“명문 있는 싸움” 정면돌파 의지 다져(05.12.09)
- 사립학교법 통과/ ‘얼음 정국’ 냉각기 불가피(05.12.10)
- 국회일정 거부 의장실 점거농성·사학단체 집회 등 원외투쟁/한나라, 사학법 투쟁 ‘올인’(05.12.13)

한겨레신문의 은유적 특징은 무엇일까? 아래의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은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은유적 특징은 사학법 개정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 ‘4대 개혁법안’ 좌초위기/우리당 우왕좌왕…… 한나라 막무가내 저지(04.12.09)
- 당정 이견·관련단체 반발 ‘난항’ 예고(04.10.15)
- 사학법 한나라 저지 속 국회 통과(05.12.10)
- ‘사학 개혁’ 뒷걸음질을 경계한다(04.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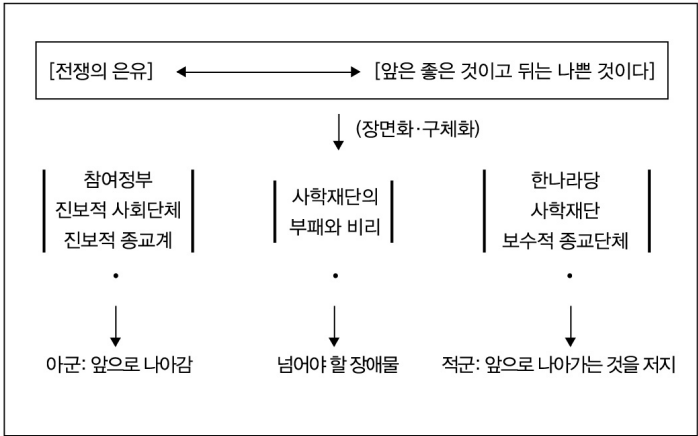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의 은유는 ‘항해의 은유’라 부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좌초’란 표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난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기사에서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마치 장애물을 뚫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주고 있고, 네 번째 기사의 뒷걸음질이란 뒤로 퇴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세 번째 기사와 네 번째 기사는 ‘앞과 뒤’의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방향성의 은유 또는 지향성(orient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하는 은유적 개념이 있다. 이를 지향적 은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은유의 대부분은 위-아래, 안-밖, 접촉-분리, 깊음-얕음,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지향적 은유는, 예를 들어 ‘행복은 위’에서처럼 어떤 개념에 공간적 지향성을 준다. 행복이 위의 방향이라는 사실은 “I’m feeling up today”(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와 같은 영어 표현을 생성한다(Lakoff & Johnson, 1980/1995, 34쪽).

그렇다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나 뒤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앞과 뒤’의 구분은 위의 레이코프의 언급처럼 중립적인 구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학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정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신교 진보단체, 사학법 재개정 요구 두고 비판 “사학 폐해 개선할 고민부터 하라”(07.03.03)
- 재단 인사권 독단 등 횡포 차단(04.07.07)
- 부패 재단과 반부패 교사(04.02.23)
- 사학재단 사학법 반대 진짜 이유는/친인척 이사 수 제한 등 족벌운영 방지책에 반감(05.12.12)
- 사립학교법 고쳐 회계 투명화를(04.06.15)
- 책임용 탈락 구제 온전하게 되도록(04.06.21)

위 예문들 모두 일상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면 이것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서야 할 장애물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2006년 12월 18일자 한겨레 “사학법,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기사는 위의 내용들을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개혁입법은 우리 시대의 과제”(04.10.18)이며



<그림 7> 한겨레의 전체 프레임

교육의 영역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는 “사립학교도 공공기관”(05.11.15)임을 확인하는 교육의 공공성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합적으로 포괄하는 은유는 ‘앞은 좋다/뒤는 나쁘다’의 은유 또는 진보의 은유 또는 항해의 은유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갈등 담지자들의 정당성은 ‘사학법 개정’이나 ‘사학법 개정 저지’라는 전쟁 은유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가 ‘수호자/강탈자’의 은유적 의미를 갈등 담지자에게 부여했다면 한겨레는 ‘앞(좋은 것)으로 향하는 사람/뒤(나쁜 것)로 향하는 사람’과 ‘진보(앞으로 나아감)/수구(뒤에 머물려고 함)’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서의 갈등 담지자 구도와 가치 평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겨레에서 사용된 갈등은유는 ‘전쟁은유’이며, 개념적 중심은유는 ‘앞은 좋음/뒤는 나쁨’의 은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둘이 상호보완되는 논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지당하거나 막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장애물 사이의 갈등은 타협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다.

한겨레에서 보도된 갈등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사학법 개정’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나아감’이며, 이것의 장애물은 ‘사학재단의 독단적 인사나 부패’ 등의 여러 쟁점들을 하나의 유사성을 묶어낸다—또는 계열체로 묶어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군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정부·진보적 사회단체·진보적 종교계’가 되며, 이를 저지하는 적군은 ‘한나라당·사학재단·보수적 종교단체’가 된다. 그리고 이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는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쟁터’로서 장면화된다. 이를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도식화해보면 <그림 7>과 같다.

4) 언론사별 전체 프레임의 차이와 정치적 함의

앞에서 분석한 대로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는 전쟁은유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개념적 중심은유에 있어서는 조선일보와 국민일보가 동일했던 반면 한겨레신문은 달랐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사이에는 어떤 자유를 강조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프레임 분석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 기틀린과 터크만은 이데올로기 분석, 즉 객관적인 반영이 아니라 뒤틀린 구성에 대한 분석을 프레임 분석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가 함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이다. 조선일보·국민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이의 차이와 각각의 프레임이 담지하고 있는 헤게모니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국민일보/한겨레신문 간의 차이는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두 대립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은 내부로 다시 반영된다는 지적의 언급이다(Butler, Laclau and Žižek, 2000).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석으로 되돌아가보자. 조선일보·국민일보는 한겨레와 외부적으로만 대립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외부적 대립을 정의하는 방식에서도 대립된다. 조선과 국민은 자신을 ‘자유 수호자’로 보면서 한겨레의 논조를 ‘자유

강탈의 논리'로 보는 반면, 한겨레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조선과 국민을 '뒤에서 머무르려는 자'로 본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선과 국민의 '자유는 소유다'라는 은유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기에 그것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말 그대로 '자유는 소유다'라는 의미는 기득권이 되며 바로 그런 이유로 과거에 머물러는 수구(守舊)가 된다. 조선과 국민이 한겨레의 은유를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둘이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둘 모두 '자유'와 '평등(또는 공공성)'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갖고 있고, 한편은 '자유'의 편에, 한편은 '평등'의 편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차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은유 프레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둘은 어떤 개념이라 할지라도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이 둘 사이에는 소통을 가로막는 어떤 비소통의 공간이 존재한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전적으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타자의 현존에 직면"(Laclau & Mouffe, 1985/1992)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적대(antagonism)'로 명명하고 있다. 조선과 국민의 '자유'는 한겨레의 '앞으로 나아감' 때문에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방해받는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즉 두 개의 정치세력 또는 정치적 관점·전망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두 개의 현실—가로막힌 자유와 나아가지 못하는 진보—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적어도 무엇이 옳은 자유인지 무엇이 옳은 진보인지를 판단해줄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객관적인 것으로 불릴 만한 것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연구자 첨가: 헤게모니는) 삶 전체에 있어서의 실재와 기대의 총체로서 우리들이 지닌 역량에 대한 인식과 그 배분,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구성적 지각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성적이고 실제로 구성 중인 의미와 가치에 관한 하나의 체화된 체계이다(Williams, 1977/1992, 138쪽).

이 인용문에서 앞에서의 프레임 분석에서 등장했던 용어인 ‘체험’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체험된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체험과 은유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은유는 어떻게 헤게모니와 연결될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일보의 프레임 전략이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국민일보의 주된 전략은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익숙한 체험을 가지고 낯선 체험을 정의하는 은유적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미 세계를 이해하는 체험의 체계 — 또는 인지적 스키마 — 를 가지고 있다. 그때 국민일보의 은유 프레임은 아직 명명되지 않은 사학법 개정을 기독교 신자들의 세계관과 연결시킴으로써 이들이 한겨레의 논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학법 개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 체험은 그들에게는 현실이지 절대로 환상이나 환영과 갖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왜 자신의 자유보다 더 많은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조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친북좌파’라는 명명법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어쨌면 다음과 같은 기사의 역할이 더 클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국제적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주의의 평등 사상을 중시했던 중국도 이제는 철저한 엘리트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제국은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저마다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한편 예단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학이다(조선일보, 2004.09.04).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사학의 자유와 독자 자신의 자유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독자들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사학은 독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인 엘리트 교육,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사학의 자유는 더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이다. 이

두 자유는 이 기사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고 있다. 우리의 입시 열기를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가능한 추론 중 하나일 것이다. 두 신문사를 통한 추론의 내용이 어쨌든 이 추론에서 동일하게 지적되는 것은 갈등 담지자 이외의 사람들이 이 갈등 담지자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주체성의 메커니즘이다. 이들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탈구(dislocation) — 즉,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음 — 를 이와 같은 은유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체험하려 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갈등 담지자가 제시하는 갈등 해결 방안 — 또는 정치 프로젝트 — 를 자신의 미래 체험으로 받아들여려고 한다. 이것은 윌리엄스가 말하는 ‘실재와 기대의 총체로서의 …… 체험적 체계’에 해당하며, 레이코프가 말하는 체험으로서의 은유이자 “실재(갈등이라는 실재)와 중층 결정된 개인과 개인의 존재조건 간의 상상적 관계(은유를 통해 전미래 시제로 해결된 갈등)”라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와도 일맥상통한다(Althusser, 1965/1996, 281쪽). 은유 프레임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 즉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적대적 갈등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설득과 동의와 정치적 동원 — 중립적인 정치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 장치라면 헤게모니적 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레이코프의 공화당 프레임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레이코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은유와 전체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한 가지 문제의 두 측면이다. 왜냐하면 레이코프의 은유 개념이란 개별 문장에만 적용되는 단순한 비유로서의 은유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 또는 구조를 이루는 전체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화당의 세금, 낙태, 총기 규제, 외교에 대한 정책을 하나의 일관된 전체 프레임으로 묶을 수 있었으며, 이 전체 프레임의 정치적 효과를 추론해낼 수 있었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전체 프레임의 정치적 효과는 ‘정책(낮선 것)’을 ‘일반 대중의 통념(낮익은 것)’을 통해 설명하는 개념적 중심은유의 힘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레이코프의 전체 프레임 이론을 우리의 미디어 현실에 적용해서 전체 프레임이 재구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재구성될 수 있다면 이 재구성된 전체 프레임의 정치적 함의를 잠정적이거나 확인해보는 것이었다.

분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신문사 모두 갈등은유로서 전쟁은유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갈등은유란 단순한 개별적인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을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구성하는 일상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각에 맞게 행위하게 하는 특정 행위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미디어 프레임 이론에 적용해보면, 미디어의 재현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은유체계를 수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이 은유체계라는 창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끔 만드는 사회적·상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만약 수용자들이 이 은유를 받아들인다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타협점이 없는 적대적 갈등으로 인식하게 되고 수용자들의 선택이란 오직 어느 갈등 담지자의 입장과 동일시하고 정치적 행동을 같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한된다.

둘째 전쟁은 명분에 의해서 정당화되듯이 세 신문사 모두 이 전쟁은유를 개념적 중심은유로 정당화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자유는 재산이다’라는 개념적 중심은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이 두 신문사 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조선일보와 달리 국민일보는 ‘종교의 자유’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뿐이다. 이 은유에 따라 정당, 정부나 사회단체 등의 갈등 담지자들은 ‘자유의 옹호자’와 ‘자유의 침해자’로 이분화되며 사건의 진행은 이 두 세력 간의 밀고 당기기 게임으로 내러티브화된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앞은 좋은 것이고 뒤는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적 중심은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 담지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세력’과 ‘뒤로 퇴보하려는 세력’으로 이분화되었다. 그리고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 내러티브화되고 장면화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전체 프레임은 헤게모니라는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스튜어트 홀은 미디어의 재현이 여론과 동의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여론과 동의를 형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Hall, 1996). 이 질문은 이 연구의 맥락 안에서도 던져진다. 즉, 세 신문사의 전체 프레임은 여론의 반영인가 아니면 여론의 형성인가? 이 지면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미디어 재현, 즉 전체 프레임이 수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수용자들의 통념에 기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디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일반 수용자들이 그 정치적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수용자들의 통념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 전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재현과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갖는 함의를 연결해볼 수 있다. 그람시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과 일반 대중들의 상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중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집합의지’를 창출해내는 담론적 기능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 담론적 기능을 특정한 인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미디어란 어쩌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유기적 지식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잠정적으로나마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실재와 기대의 총체로서의 체험적 체계”라는 헤게모니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조선일보와 국민일보가 수용자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지점을 추론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개념적 중심은유의 관계가 단순한 차이적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 점을 바로 앞의 논의와 연결지어 본다면, 미디어 재현이란 적대적 갈등 상황 속에서의 능동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점이 은유분석과 은유분석을 통한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다. 이 결론 이외에도 이 연구의 맥락 밖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미디어 재현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질문이다. 미디어는 갈등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준수해야 할 선택적 규칙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디어는 갈등 상황을 객관적이고 심도 깊게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얻어낸 분석 결과와 이 일반적인 윤리적 판단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레이코프는 그의 저서를 공화당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프레임 구성과 헤게모니 지형의 변화라는 당파적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상극된 두 대답을 매개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이 연구가 갖는 의미와 한계와 연결된다.

아마도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갈등 사안에 대한 한 신문사의 전체적인 수사적 전략으로서의 전체 프레임을 분석했다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전체 프레임 분석은 그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국면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의 미디어 기능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왔던 것이라면 이 전체 국면 속에서의 미디어의 위치 또한 분석되어야만 한다. 즉, 총체적인 분석 속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만 기존 프레임 분석의 개별기사의 유목화와 빈도수 측정을 넘어서 전체 국면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점이라는 의미만을 불완전하게나마 가질 뿐이다. 국면분석을 위한 프레임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과 방법이 연결되어야만 한다. 보다 전체적인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성이나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분석 틀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란 적대(antagonism)를 정당한 대항(adversary)의 논리로 번역하는 데서 힘을 갖는다는 무폐의 단언과 같은 정치철학 테제들과 담론·수사적 분석의 연결점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연계점들을 프레임 분석에 맞게 다듬을 수 있다면 이 연구의 한계, 즉 잠정적인 추론에 그쳤던 전체 프레임의 헤게모니 분석을 넘어서 보다 더 비판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1). 지역사회의 논쟁, 집단프레임, 그리고 뉴스매체.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190~240.
- 김원용·이동훈 (2004). 신문의 보도프레임 형성과 뉴스제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351~382.
- 김원용·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박경숙 (2002). 집단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2호, 310~340.
- 이민규·김수정 (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4호, 여름호, 132~160.
- 정재철 (2004). 한국 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5호, 여름호, 135~162.
- Althusser, L. (1965). *Pour Marx*. Paris: Edition La Decouverte. 이종영 역 (1996). 『맑스를 위하여』. 서울: 백의.
- Amossy, R. (2000). *L'argumentation dans le discours*. Paris: Les Édition Nathan. 장인봉 역 (2003). 『담화속의 논증: 정치담화, 사상 문학, 허구』. 서울: 동문선.
- Butler, J. and Laclau, E. and Zizek, S. (2000). *Contingency, Hegemony, Univers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London: Verso.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isk, J.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강태완·김선남 역 (1997). 『문화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 한뜻.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S., 임영호 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 Iyengar, S. (1987).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clau, E. & Mouffe, S. (1985). *Hegemony &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 Lakoff, G. (2002).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손대오 역 (2004). 『도덕의 정치』. 서울: 생각하는 백성.
-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유나영 역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미국의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서울: 삼인.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역 (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Ricoeur, P. (1977). *The Rule of Metaphor: Multi-Disciplinary Studies of the Creation of Meaning in Languag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chatz, T. (1981). Hollywood Genres. 한창호·허문영 역 (1996).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서울: 한나래.
- Scheufele, D. (1999), A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hoemaker, P., & Reese, S. D. (1996).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s*. New York Longman. 김원용 역 (1997). 『미디어사회학』. 서울: 나남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서울: 나남.
-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일환 역 (1992). 『이념과 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Wilmot, W. & Hocker,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 New York: Wm. C. Brown.
- Wimmer, R. D., & Dominick, J. R. (1997)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5th ed.). Belmont, CA: Wadsworth.
- Valkenburg, M. P. et al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4), 539~560.

What Lakoff and Johnson's Metaphoric Conceptualization Can Tell Us About News Stories on the Conflicts Around the Private School Law

Byeong-Ju Lee

Lecturer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Kwan-Young Park

Graduate Student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Inhee Lee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rimary tones of news stories and the overall frames which are structuralized by the primary tones in the news reporting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social conflicts occurring around the law. For this purpose, the study applied Lakoff and Johnson's metaphoric conceptualization to the analysis of the news stories reported in the Chosun Ilbo, the Hankyoreh, and the Kookmin Ilbo, which a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audience of the conservative, progressive, and religious forces, respective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ncludes to describe in which manner the newspapers attempt to depict the frames of major social conflicts regarding the Private School Law. The results show that (1) the Chosun Ilbo and the Kookmin Ilbo attempt to structuralize the social conflicts by providing frames of 'freedom is an asset' and a 'war' metaphors; (2) the Kookmin Ilbo applied more frames of a religious metaphor among others; and (3) the Hankyoreh attempts to structuralize the social conflicts by offering frames of 'the front is good, but the rear is bad' and 'war' metaphors, which proves to be the opposite in presenting the overall framing.

Key words: frame, metaphor, news stories, Private School Law